

농촌 지역에 노인들의 흡연습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희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The Effect of Elderly Smoking Habits on Life Satisfaction in Rural Area

Hee-Tae chung

Professor, Health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활만족도를 비교·조사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선입견이 아닌 흡연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우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읍 소재 10곳의 경로당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남·여 65세 이상 노인 중 흡연자 100명과 비흡연자 100명에게 생활만족도 조사를 하여, 이 그룹 간에 정신적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비흡연자 보다는 흡연자가 정신적인 생활만족도, 생활의 즐거움, 사회활동 참여도, 외로움 등에서 유의하게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최소한 3,40년 이상 오랜 시간동안 흡연의 습관에서 오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의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후속연구에는 좀 더 대상을 확장하여, 융복합측면에서 다각적인 노인들의 흡연행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담배, 흡연, 생활 만족도, 노인, 농촌지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ife satisfaction of smokers and non - smokers among rural elderly people and to provide a balanced understanding of smoking rather than prejudice about smoking. To do this, we selected 10 S-eup sites as a sample and conducted a life satisfaction survey of 100 smokers and 100 nonsmokers among the elderly aged 65 years and over,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among thes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smokers were significantly more satisfied with mental life satisfaction, enjoyment of lif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loneliness than non - smok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rural areas are exposed to smoking habits for at least 3,40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he elderly living in aging society to understand the cigarette smokes correctly. In the future study, Research is expected to be active.

Key Words : Cigarette, Smoking, Life satisfaction, Elderly, Rural area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7

*Corresponding Author : Hee-Tae Chung(ceochung@nsu.ac.kr)

Received January 22, 2019

Revised February 18,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금연 캠페인이 활성화됨에 따라, 담배의 부정적인 것만 강조시켜 담배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 하다고 생각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2항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강증진법 제8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흡연 소비자는 정확한 담배의 성분 및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흡연은 질병의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일요인으로 생각된다. 흡연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의 암의 발생률을 높이며, 모든 암(Cancer)의 30%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폐암의 90%의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구강암과 식도암의 60~80%가 흡연의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Nicotine)·노르니코틴(Nornicotine)·단백질(Protein)등의 질소 함유물은 그 자체의 해독보다 연소시 생성되는 질소 화합물(Nitrogen Compound)과 탄화수소물(Hydrocarbon)에 의한 해독이 더 크다. 이들 물질 중에는 발암 물질로 여겨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1-4].

담배 연기는 미립자 성분(Particulate Phase)과 기체성분(Gaseous Phase)으로 분류 된다. 인체에 유해한 기체성분으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산화질소(Nitrogen Oxide), 질소화합물(Nitrogen Compound), 암모니아(Ammonia), 알데하이드(Aldehyde),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등이 있으며 유해한 미립자성분으로는 니코틴(Nicotine), 타르(Tar), 석탄산(Phenol), 폴로늄210, 비소(Arsenic), 크레졸(Crosol), 벤조피렌(Benzopyrene), 아크롤레인(Acrolein) 등이 있다. 한번 흡입시 대개 50ml의 담배 연기가 인체로 흡입된다[5-7].

한편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의 살페트리에르병원(Pitie-Salpetriere Hospital) 패트릭 P. 마이클 박사팀은 미국 실험생물학회지(FASEB : the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최근호에서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이 파킨슨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발표했다[1]. 또한 피셔(Fisher)에 의하면 사람들의 위기 순간이나 집중이 요구되거나 극도로 불안한 순간에 담배를 찾는다고 언급하였으며, ‘담배는 행동을 가라앉히는, 고요하고도 사나운 체념을 준다. 모든 위대한 흡연가 들은 체념한 자와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야망가나 떠벌이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2,3].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한 노인들은 실생활에서 담배의 장점을 언급하곤 한다[5]. 특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 환경, 가족들과의 관계, 학력 등 생활형태의 문제로 인하여 흡연과 음주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8].

세상에는 술·담배를 하면서도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즉, 신체적인 해로움이나 부정적인 해로움이더라도 정신적인 즐거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5].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정적인 흡연이 정신적인 영향에는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해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금연법으로 인한 흡연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다. ‘백해무익이란 담배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흡연자에게 정말 궁금한 점이기도하다. 특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심 깊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자들은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고 한다[4]. 본 연구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비흡연자와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여 흡연이 가져오는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흡연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우려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생활만족도 차이를 알아봄에 따라, 충남 성환시의 성환읍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10개 노인정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불특정 인원에게 100부를 배부하였고, 비흡연자의 설문지는 노인정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흡연여부를 물어본 후 무작위로 설문지 100부를 배부를 하였다. 그렇게 총 설문지 200부 모두 회수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Variables		N	%
gender	Man(Smoker)	126(87)	63.0
	Woman(Smoker)	74(13)	37.0
age	65 years or older(Smoker)	74	37.0
	70 years or older(Smoker)	56	28.0
	75 years or older(Smoker)	44	22.0
	80 years or older(Smoker)	26	13.0
residence	Seonghwan-eup Dae Hong-Ri	22	11.0
	Seonghwan-eup Dohari	25	12.5
	Seonghwan-eup Maesuori	27	13.5
	Seonghwan-eup bogmoli	26	13.0
	Seongwol Eup Seongwolli	22	11.0
	seonghwan-eub seonghwanli	16	8.0
	seonghwan-eub songdeogli	15	7.5
	seonghwan-eub suhyangli	17	8.5
	seonghwan-eub singali	17	8.5
	seonghwan-eub angungli	13	6.5
Total		200	100

2.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 가족, 외로움, 가치관 등으로 농촌 노인에게 맞춰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생활만족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울증을 선택 했다.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 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정신 및 신체 증상을 총칭하는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 우울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강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울 증상을 심리적 및 생리적인 우울로 구분한 대표적인 우울척도인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노인에 맞게 적용·수정하여 사용했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우울 증상을 심리적 중점으로 맞춰 문항을 만들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

그램인 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두 집단 사이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각 문항과 점수를 넣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53.33%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성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65세-69세는 37%, 70세-74세 대상자는 28%, 75세-79세 대상자는 22%, 80세 이상은 13%로 65-69세의 빈도가 높았다.

3.2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활만족도 비교

두 집단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ife satisfaction between smoking and non-smoking

Life Satisfaction Rating						
	very bad	bad	Neutral	good	Very good	Total
smoking	0	0	12	68	20	100
Non-smoking	6	6	54	30	4	100
Total	6	6	66	98	24	200

Table 2-1. Chi square test

	value	Degree of freedom	p-value (two-sided test)
pearson chi square	21.064a	4	.000
Likelihood ratio	36.158	4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6.980	1	.000
Effective cases	200		

흡연자 집단의 경우 ‘매우 나쁨’, ‘나쁨’ 등급에 인원이 없고, ‘보통’이 12명으로 12%, ‘ 좋음’이 68명으로 68%, ‘매우 좋음’이 20명으로 20%로써 총 100%가 ‘보통’ 이상 등급에 포함되어 있고, 비흡연자의 집단의 경우에는 ‘매

우 나쁨'이 6명으로 6%, '나쁨'이 6명으로 6%, '보통'이 54명으로 54%, ' 좋음'이 30명으로 30%, '매우 좋음'이 4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집단 사이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 Table 2-1 유의확률이 $p < 0.05$ 로 나타나 흡연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3.3 흡연 여부에 따른 '즐거움' 비교

흡연 여부에 따른 '나는 요즘 즐겁다.'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흡연 집단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30명, '그렇다'는 44명, '보통이다'는 22명, '아니다'는 2명, '전혀 아니다'는 2명으로 나와 있으며, 비흡연 집단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8명, '그렇다'는 30명, '보통이다'는 36명, '아니다'는 20명, '전혀 아니다'는 6명으로 나와 있다. 두 집단을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Table 3-1 유의확률은 $p < 0.05$ 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즐거움'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answers to pleasure according to smoking status

I am enjoying these days.

	Very well	well	usually	no	Not at all	Total
smoking	30	44	22	2	2	100
Non-smoking	8	30	32	20	6	100
Total	38	74	54	22	8	200

Table 3-1. Chi square test

	value	degree of freedom	p-value (two-sided test)
pearson chi square	17.746a	4	.001
Likelihood ratio	19.415	4	.001
Linear-by-linear Association	16.075	1	.000
Effective cases	200		

3.4 흡연 여부에 따른 '외로움' 비교

설문조사에 따른 '외롭지 않다.'란 문항을 통해,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degree of feeling loneliness by smoking

not lonely.

	Very well	well	usually	no	Not at all	Total
smoking	38	38	18	6	0	100
Non-smoking	14	42	22	18	4	100
Total	52	80	40	24	4	200

Table 4-1. Chi square test

	value	degree of freedom	p-value (two-sided test)
pearson chi square	10.838a	4	.028
Likelihood ratio	11.967	4	.018
Linear-by-linear Association	9.542	1	.002
Effective cases	200		

Table 4와 같이 흡연 집단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38명, '그렇다'는 38명, '보통이다'는 18명, '아니다'는 6명, '전혀 아니다'는 0명으로 나와 있으며, 비흡연 집단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14명, '그렇다'는 22명, '보통이다'는 22명, '아니다'는 18명, '전혀 아니다'는 4명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Table 4-1 유의확률은 $p < 0.05$ 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현 농촌노인들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흡연자 100명, 비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흡연 대상자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흡연의 습관을 유지한 만65세 이상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흡연으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으로 비흡연자 집단보다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에는 심리적인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흥분, 절망감, 과민성, 자기

비하, 공허감, 불만 등을 문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즐거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즐거움'이 크다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외로움의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제언

본 연구결과 긍정적인 정신적 영향이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실 알 수 없지만, 농촌노인들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활만족도에는 흡연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명한 차이는 보여주고 있고, 본 연구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들의 오랜 기간 동안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금연을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담배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곳에서 끊지 못하고 있는 흡연자는 남들의 시선과 금연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모두 건강함을 잃을 것이다[5,6].

지금의 흡연자들은 흡연이 건강에 이롭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담배가 주는 정신적 도움을 즐기며 흡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더욱더 그러하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879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담배가 해롭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0%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가운데 83%는 학교를 다닐 때 이미 들었으며, 17%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흡연의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리는 약간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흡연자 자신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7%, 담배회사라고 한사람이 18.9%, 정부라고 한 사람이 13.5%로 나타났다[5-8].

한편 니코틴은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종종 주목할 만한 근거 있는 치료제로 쓰여졌으며 근대의학에서도 어떤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니코틴은 기억력 향상과, 뇌파에서도 측두엽, 전두엽 등의 몇 가지 서파가 감소되어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사람에게 니코틴을 투여함으로써 기능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니코틴은 뇌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되어 초기 파킨슨병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5,9]. 니코틴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의 생존이 증진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로 인해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까지 거둘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다. 실제로 흡연자들의 경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50% 정도 더 낮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같은 인지증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 작동성 신경세포를 감소시킨다고 한다[2,3,7].

이처럼 담배는 해로운 것인 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람에게 흡연의 부정적인 것만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무분별한 흡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금연을 권장 할 것이라면, 부정적인 지식만을 제공하여 금연이라는 행동을 죄책감으로 하게 하려는 것보다 흡연자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 선택이라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금연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을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9,10].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가 흡연과 건강에 대한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고, 흡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을 비롯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만을 국한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Patrick P. Michael. (2011.08.03.). Nicotine for lung cancer, treatment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ChosunBiz*, p.13
- [2] E. B. Fisher, E. Lichtenstein, D. Haire-Joshu & G. D. Morganl. (1993). Methods, successes, and failures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Annual Research Medicine*, 44, 481-513.
- [3] M. Shuker. (1994.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MMWR*, 43(RR-2), 1-19.
- [4] H. M. Dallaso & W. P. James. (1984). The role of smoking in the regulation of energy balance. *Int J Obes*, 8(4), 365-375.
- [5] Y. I. Kim. (2015). Smoking status of Korean people. *Korea Tobacco Consumers Association*. <http://www.ksafamily.or.kr>
- [6] S. H. Lee.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obe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98-99.
- [7] Y. J. Lim. (2003). *Influence of smoking habits on the DNA damage, endothelial function and lipid peroxidation in healthy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12-114.
- [8] Y. H. Choi, Y. S. Ha & M. A. Park. (2012).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ecological model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3), 327-337.
- [9] M. Bektas, C. Ozturk & M. Armstrong. (2010). An approach to children's smoking behaviors using social cognitive learning theory.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1, 1143-1149.
- [10] H. S. An & I. H. Park. (2016). The effect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activitie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moking and smoking refusal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5), 465-486.

정 희 태(Chung, Hee-Tae)

[정회원]



- 2005년 3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보건행정학 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3년 9월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경제
- E-Mail : ceochung@nsu.ac.kr